
부산 11·23 사건, 민족과 항일의 울타리를 넘어서

김 인 호 / 동의대학교 사학과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V. 11.23사건의 역사적 성격 |
| II. 구술로 개관한 11.23사건 | 1. 내선일체에 대한 회의 |
| III. 11.23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2. 민족보다는 애교심 |
| 1. 모의훈련과 관련없는 국방경기대회 | V. 나오며 |
| 2. 참가학교 명부의 오류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3. 교사와 역사의 탈구 | |
| 4. 민족의 이름으로 한 폭력의 정당성 | |

I. 들어가며

부산 노다이 사건(이하 11.23사건)¹⁾이란 1940년 11월 23일 ‘황국청년의 연성’을 명분으로 개최된 국방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심판들이 일본인 학교를 억지로 우승하게 만들면서 촉발한 학생시위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두고 기왕의 연구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째는 본 사건의 민족운동 사상의 위상에 관한 것으로, 처음으로 본 사건을 소개한 『釜山學生事件

1) 일반적으로 ‘노다이(乃台兼治) 사건’ 혹은 부산항일학생운동이라 부른다. 하지만 조선인의 항일운동을 일본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도 문제이며, 특정 사건을 부산 지역운동의 전체성을 대신하는 부산항일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본 사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탐구와 역사적인 가치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11·23사건’으로 명명한다.

正史』(1967)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사』(1977) 등에서 '당위에 찬 민족항쟁의 길'²⁾이나 '민족혼의 충격적 경각'³⁾ 등으로 의미되면서 이후 모든 연구에서 본 사건의 역사성을 설명할 때 이러한 '민족혼'의 레토릭은 반복적으로 수용되었다.⁴⁾ 두 번째 경향은 지역사회의 항일 기념사업이나 교육사 차원에서 부산지역의 항일전통 혹은 특정 校史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본 사건을 정리해서 최초로 자료화 한 『乃台사건회상록』(문인갑 등, 동래고등학교, 1962)를 비롯한 각종 구술과 『동래고등학교 100년사』(동래고동창회, 2002), 『부산 민주운동사』(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6)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의의 축적 위에 부산항일학생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성역화'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종래 동래고나 부산상고의 '校史'였던 11.23사건이 부산의 항일전통을 대변하는 이른바 학생민족운동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해선 부산항일학생

-
- 2) "1940년 11월 23일, 그날은 동중(東中), 부상(釜商) 학생만이 슬퍼하는 날이 아니다. 일제를 몰아내지 않고는 민족의 정사는 회복,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위한 엄연하고 당위에 찬 민족 항쟁의 길 앞에서 넘어던기 힘든 '한계'라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였다. 통분을 삼키며 그 약동하던 그들의 피를 스스로 진정시켜야 했던 우리 학도들의 좌절은 당시의 우리 민족상을 그대로 표징하는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독립운동사』(제9권)-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723쪽.
 - 3) "1940년 부산의 학생항쟁은 일제에 대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의 용감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에만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교 학생들의 능동적인 투쟁으로써 일제의 탄압에 짓눌리고 좌절되어 가고 있던 민족혼을 보다 충격적으로 경각시켰다는 점에 더욱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동, 1977.12.26. 726쪽.
 - 4) 김의환, 1967, 『부산근대 교육사』 태화출판사;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시사』제1권, 부산 항일의거 기념논집 편찬 위원회, 1992, 『부산학생 항일의거의 재조명』, 계림출판사 등의 연구는 대체로 부산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민족적 울분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의 항일의거로 보았다.

운동이라는 기념비적 명칭이 부여되었다.⁵⁾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시체제의 실태와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의 항일성만 특화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라는 측면에서 1930년대 처한 그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특히 당대의 취업난을 본 사건과 연관지은 강대민의 연구⁶⁾도 있지만 당시 실제 부산지역 학생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무역의 중심이자 다양한 국가간의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한 부산의 근대성을 포용이나 관용과 같은 언술보다는 이항대립적인 '抗日'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하려는 것에 대한 자성의 필요성이다. 그간의 연구는 '抗日'이라는 척도 이외의 모색이 극히 제약되었고, 그나마 상당한 논문이 단순한 항일 연대기, 혹은 잊지 못할 그때의 이야기를 구술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정치한 학문적 고찰보다는 기념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항일과 민족의 이름에 기댄 채 다양한 '우려내기'가 진행되었다.

셋째, 당시 학생층의 행위에 대한 도덕성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일본인에 대한 저항이면 모두 정의롭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일본인과 싸우면 무조건 정의로운 '抗日'일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위하면서 일본인 교사와 일본인 여

5) "부산학생들의 항일의거가 일어난 게 1940년입니다. 당시는 일제 탄압이 심할 때여서 다른 지역에선 엄두도 못낼 일을 부산 학생들이 해냈는데도 실상보다 덜 알려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명 노다이 사건으로 말하지만 '사건'이 아니라 즐기치게 이어진 정신의 결정체인 만큼 항일의거라고 해야 하며, 부산에서 만큼은 학생의 날도 기존 11월 3일이 아닌 11월 23일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노다이 사건은 학생 항일의거」, 『부산일보』, 2005.9.2, 29면.

6) 강대민, 2006.12, 「노다이사건 구술 재검토-반제항일과 내선일체의 중간시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217쪽.

성에게 가한 폭력조차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나아가 친일적이고 침략적인 국방경기대회에 앞 다투어 참가하려는 도덕적 흠결은 민족이라는 함성 속에 묻혀야 하는가?

넷째, 기왕의 연구는 동래고·부산상고 출신 조선인의 공동항거라는 교사의 의의를 지역사 단위로 승격시키려 하지만 정작 校史와 歷史를 구분하지 않았다. 11.23사건 관련 기록이나 자료들이 과학적 비판과 해석이 없이 당시 경험자의 구술 상태로 배열되었고, 각종의 활동 기록이 학교의 명예와 민족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다보니 운동에 대한 사후 평가과정에서 늘 ‘과잉해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기고장의 학생운동이나 자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려는 구술자들의 희망이 반영되면서 ‘校史’가 아니라 ‘歷史’로 나아가는데 한계를 보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서술들은 당시의 시대적 특성이나 사회적 성격 등에 대한 충실한 고려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11.23사건에 대한 상당수의 논문이 바로 특정한 학교사 빛내기 차원이나 기념을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애교심이 객관의 보호막을 뚫고 학문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을 아무리 ‘抗日’의 이름으로 구술하고자 해도 당대 학생운동의 객관적 측면이나 학생들이 처한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동기나 희망이라는 측면은 망각하기 쉬웠다. 이제 21세기 포용의 도시 부산의 역사를 돌아봄에 추상적인 항일이나 친일을 구호에 찌들기 이전의 참 모습 즉, 진정한 부산 사람의 삶의 모습의 일환으로서 11.23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23사건에 대한 기왕의 연구나 구술에 나타난 다양한 사실 왜곡이나 과잉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실제 있었던 11.23사건’으로 재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II. 구술로 개관한 11.23사건

국방경기대회란 1939년부터 조선총독부가 “皇國青年의 자질연성에 노력하고 皇運翼贊에 참가한다”⁷⁾는 취지 아래 각종 각개전투나 분대전투에 사용되는 동작을 육상경기로 전환한 경기였다. 경기방식은 “종목마다 완전무장아래 이루어졌는데 빨리 달리기, 모래자루 나르기, 장애물 경주, 手榴彈던지기 등 4사람이 한 동아리가 되어서 이어 달리는 형식”이었다.⁸⁾ 경기가 4인 1조로 하는 경기라서 학교간 경쟁심(애교심)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국방경기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11.23사건을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독립운동사』 등 당시 참가학생의 구술을 토대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관례에 따라 전년도 우승교가 우승기를 들고 제일 먼저 입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이 해는 본교를 먼저 입장시키지 않고 일본인 학교인 부산중학교를 먼저 입장시키고, 다음으로 마산중학교를, 세번째에야 본교를 입장시켰다.⁹⁾ 그런데 마지막 경기인 1개 분대 장거리구보행진에서도 동래중학이 1위를 하였으나 일인 심판들이 복장검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학생들의 단추 각반을 건드려 놓고는 복장미비를 이유로 실격을 선언하고 동래중학과 부산제2상업학교를 2,3위로 결정하고 부산중학을 우승으로 결정하였다.¹⁰⁾

7) 『毎日新報』 1941.5.12~13.

8) 박순홍, 1992.4, 「부산에 불붙은 항일봉화, 노다이 사건」 『동래고동창회보』 (116), 8쪽.

9)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1쪽. 강대민, 2003, 「앞의 책」, 191쪽.

10) 김이조, 1998.10, 「법조비화-노다이 사건」 『동래고동창회보』(194), 3쪽.

(B) 폐회식에서 산택(山澤) 경남도지사는 치사에서 “제군들은 정정 당당히 싸웠다.” 운운하자 양교의 학생들은 “무엇이 정정 당당이나” 라고 외치며 응수했다. 또 심판장 내태(乃台)가 “심판은 신성하고 절대 불가침이다. 잔소리 말고 심판장의 판정에 따라라”하여 한국 학생들의 항의를 일축하고, 일인 학교인 부산 중학을 1위로 발표하여 우승기를 수여하니, 한국학생들은, “내태(乃台) 내려와”, “부정 심판에 응할 수 없다”, “एं터리 심판 취소하고 민족 차별 없애라”, “무엇이 내선일체나”, “우승은 우리가 했으니 우승기를 내놓아라” 등을 외치며 여기 저기에서 항의를 했다. 식순의 마지막에 일장기가 하강할 때부터 한국학생은 본격적인 민족정기를 발화시키기 시작하였다.¹¹⁾

(C) 폐회식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가운데 진행되어 일본 국가를 합창할 때였다. 장내를 흐르는 일본국가에 맞추어 동래중 학생들은 욕설이 된 가사로서 응수했다. 분함과 초조감과 슬픔으로 교차된 억제할 수 없는 정열의 화염은 참고 또 참아온 민족의 울부짖음이 되어 저물어 가는 구덕산 기슭은 울음바다로 바꾸어갔다. 폐회선언이 되자 동래중학생들과 부산제2상생들은 “일본 놈을 때려라! 죽여라! 노다이를 죽여라!” 등 폭언과 함께 소지했던 총기로써 일본인 학생은 물론 일본인 교사들을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여 어두운 공설 운동장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¹²⁾

(D) 이날은 일본인의 축제일이라서 집집마다 등불을 커 놓은 것을 학생들은 부숴버리기도 하고 "일본인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겁을 집어 먹고 집안으로 도망치는 광경을 볼 수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독립운동사』 (9)-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720 ~721쪽.

12)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5쪽. 강대민, 2003, 「앞의 책」, 193쪽.

있었다...운동장 폐회식 때부터 형사와 헌병은 학생들의 뒤를 따르면서 행동을 감시했다. 노다이 집으로 가지는 목소리가 나왔다.

(E) 부산 제2상 학생들은 먼저 대청동을 내려와서 동래중과 합류했다. 이때 총을 가진 학생들과 일부 하급생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서 동래 가는 전차를 탔고, 주력부대인 4·5학년 및 영주동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영주동쪽으로 가는 산길을 걸어갔다. 어쨌든 모여든 200여 명의 학생들은 영주터널 오른쪽에 위치한 노다이 집에 8시경에 도착하여 돌 세례를 퍼부었다.¹³⁾

(F) 집총무장하여 반일제 시위행진을 벌이고, 한국의 민요를 울부짖으며 부르는 양교(부상, 동중) 학생들의 모습은, 왜곡되고 빗나간 근대 한국 민족사에 대한 통한에 넘치는 눈물겨운 저항이기도 하였다. 가두항쟁에서 학생들은 외쳤다. ‘조선독립만세’ ‘일본놈 죽여라’ ‘무엇이 내선 일체냐’ ‘무엇이 동아의 맹주냐’ ‘너희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라고 절규하였다. 시위 대열이 가는 곳마다 전차는 멈추었고, 포악하던 일제군경도 손을 쓰지 못했으며, 우리를 착취하여 군림하던 일인들은 공포에 떨었다.¹⁴⁾

즉, 입장식 때부터 노다이는 지난해 승자가 선두 입장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일본인 학교인 부산중학교부터 입장시켰다.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와 상관없는 복장문제로 동래중학교의 점수를 감점하여 우승을 놓치게 했다(A). 일본인 심판장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일본인 학교 편들기에 의해서 결국 일본인 중학이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했다(B). 이에 교사와 학생들이 노다이 심판

13)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6쪽에서 정리.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앞의 책」, 721~722쪽.

관의 판정에 불복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산공설운동장 인근의 일본인 집이 있는 지역으로 몰려가서 민족차별을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시위행진을 벌였다(D). 점차 시위는 격렬해지고 노다이 심판장의 관사가 돌 세례를 받는 등 시위가 격렬했고, 민족적 울분을 토하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E). 이 운동은 민족사의 통한에 넘치는 눈물겨운 저항이었다(F) 등이다.

이후의 과정을 보자. 당일 밤 10시 무렵 부산헌병대는 각 경찰서에 긴급지령을 내려 학생들을 대거 연행했다. 대체로 이 사건으로 일경에 검거된 학생 수는 약 200명에 달하며 주모자로 지목된 동래중과 부산 1상 학생 15명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1941년 1월 30일의 선고에서는 김재한·이인회·김중배 등 3명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으며 징역 8~10월형을 받은 12명은 대구형무소로 압송되어 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이리하여 1941년 6월 7일 대구 복심법원 제1호 법정에서 언도(재판관 秋田)가 있었는데 대체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며 제2심을 받던 중 추유복은 유복자라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1명 모두는 2심에서 8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들 중 김인규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상고를 포기했고, 김인규는 서울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결국 11인 모두 8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들 중 김선갑과 김명수 두 사람은 옥중생활의 후유증으로 출옥 후 2주일 만에 사망했으며 학교 자체 처벌로 퇴학 21명, 정학 44명, 견책 10명이 있었다.

Ⅲ. 11.23 사건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모의훈련과 관련 없는 국방경기대회

기왕의 연구에서 국방경기대회는 경남지구 갑종중학교 합동 야외 훈련대회 모의전투 훈련(1940.11.21~22) 이후 이어진 운동경기로서 일본인 교관들이 국방경기대회에서 일본인 학교를 우승 시키려고 이미 모의훈련 단계부터 동래중학교 학생을 기진맥진 하게 했다고 한다.

그 훈련대회에서 우리 한국중학생들은 일인 학생들과 무엇을 겨루든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일인 심판진에서는 야외 훈련 실시의 배치와 진행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의 체력을 소모시키기로 하였다...11월 21일, 22일 양 일에 걸쳐서 일인 장교단은 한국학생들에게 음모에 의한 체력소모를 시켜 놓고 23일에는 연이어 제2회 경남학도 전력 증강 국방경기대회라는 것을 열었다.¹⁵⁾

즉, 모의훈련에서 조선인학생에 대한 편파와 차별을 다하였던 일본인 심판관은 다시 이틀 후 국방경기대회에서 일본인 중학교(동군)가 조선인 중학교(서군)를 이기게끔 하려고 온갖 부정과 편법을 다했다는 것이다.¹⁶⁾

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앞의 책」, 718~719쪽. 이와 관련한 증언은 『부산학생사건정사(釜山學生事件正史)』(1967), 6~8쪽, 『釜山略史』(1968), 299 ~300쪽. 강대민, 2003, 「앞의 책」, 190쪽.

16) “어쨌든 이틀 동안의 야영훈련을 마친 동군과 서군은 11월 23일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전력증강국방대회를 개최했다.”라고 기술하여 마치 본 경기대회가 동군과 서군의 경기대회인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 강대민, 2003,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190쪽.

과연 조선인(서군)과 일본인(동군)간의 민족적 대립구도는 실존했을까? 사실 제2회 경남지역 국방경기대회는 조선대회에 참가할 경남대표를 뽑기 위한 자리였다. 1939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1940년 제2회부터는 지역별로 우수한 학교를 조선대표로 뽑기 위해 서울의 조선신궁(현재 서울 남산공원) 앞에서 전조선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우승하면 일본 동경 皇居의 니주바시(二重橋) 광장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방경기대회는 크게 보면 군사훈련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에서 모의전투 훈련과 연관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운영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모의군사훈련은 모든 학생이 동·서군으로 편제되어 훈련을 받았지만, 국방경기대회는 동·서군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었고, 학교별로 일정한 선수를 뽑아서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였다. 그것도 3~4학년생은 졸업이 가까웠으니 하지 않았고 주로 1, 2학년 학생이 많았다. 도대회에서 1등 팀을 뽑는 경기대회이기 때문에 민족간의 경쟁보다는 학교간의 경쟁이 중요했다.

"1942년 9월 경 일본 명치신궁 국방경기대회에 조선측 대표로 조선신궁에서 일등을 한 팀인 청주상업학교가 출전했다. 모든 대동아 공영권의 지역별 대표 선수가 모인 자리에서 당당히 청주농업이 9인 줄잡고 달리기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 중 내가 2학년 때 4학년생인 가네미쓰라는 친구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나무작대기처럼 쓰러졌다. 이것을 보고 아키히토 황태자는 "이것이야말로 대화혼의 건이다"라고 칭찬하며 손뼉을 쳤다. 하지만 그는 징병 1기로 붙잡혀가서 북중국에서 전사했다."¹⁷⁾

17) 우창한김인호, 2006, 『역사의 경계를 넘는 격정의 기억』, 국학자료원, 56쪽.

또한 동군, 서군의 구분에도 문제가 있다. 『독립운동사』¹⁸⁾에서는 동군은 일본인, 서군은 조선인 학교로 구분했으나¹⁹⁾ 실제로 합동 야외훈련에서는 동군에는 부산2상·부산중[일본인 중학교]·부산1상[일본인 학교]을 배속하고 서군에는 동래중·마산중[일본인 학교]·진주농업, 진주중학교를 배속하였다. 즉, 동군=일본인과 서군=조선인이라는 대립구조는 처음부터 없었고, 동군이 나 서군 각각 조선인 일본인이 함께 배치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조·일 학생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배열이었다. 이는 학교별 대항으로 훈련을 치름으로써 조일 학생간의 적절한 경쟁과 타협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어쨌든 11.23사건 이후 국방경기대회 운영형태가 달라진 듯하다. 1941년부터는 조선청년단이 주도하여 관내 각 학교를 동원하였고, 조선청년단 동원대회와 함께 개최되었다.²⁰⁾ 이렇게 변한 것은 당시 총독부가 태평양전쟁으로 나아가면서 본 경기대회를 국민총력운동상 청년연성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 결과이기도 했다.²¹⁾ 그렇다면 이렇게 이항대립적인 논점으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앞의 책」, 718쪽.

19) “모의 전투에서 동군(東軍)은 2상(二商) (한국인), 부중(釜中) (일본인), 1상(一商)(일본인)으로 편성하고 동군 사령관은 내태(乃合) 대좌가 겸하였다. 서군(西軍)은 동래중학(한국인), 진주중학(한국인), 진주농업(한국인), 마산중학(한일 공학)으로 편성하였는데 서군 사령관은 산본(山本) 소좌가 담당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독립운동사』 (제9권), 상동, 723쪽.

20) 예를 들어 “第1回 朝鮮青年團西鮮動員大會가 平壤神社에서 開催되어..翌日에는 平壤 기림원두 公設運動場에서 國防競技大會를 開催”(『每日新報』, 1941.5.12·13), “第1回 朝鮮青年團北鮮動員大會가 咸興公會堂에서 開催되어 翌日에는 咸興公設運動場에서 國防競技大會를 開催하다.”(『每日新報』, 1941.5.18·20·21·22)라고 한 것 그리고 “京城青年團에서 26個 國民學校를 중심으로 26個 區域으로 나누어 12萬名の 團員을 一律의으로 每月 1회씩 青年部·女子部·少年部別로 動員하여 教練·體操·國防競技·防空訓練 등의 時局的 訓練을 시키기로 했다”(『每日新報』, 1941.6.20·22)고 한 것처럼 이후 道단위 행사가 아니라 청년단 주도의 행사로 바뀐 듯하다.

로 당시의 역사가 재정립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참가 학교 명부의 오류

기왕의 연구에서는 참가학교의 명부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나타났다. 즉, 『동래고 100년사』와 『부산지역학생운동사』에서는 참가 학교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진주중학 · 마산중학 · 동래중학 · 부산중학[일본인 학교] · 부산제2상 · 부산 제1상[일본인 학교] · 진주농고 · 울산농고 등의 5년제 중학과 여학교로는 동래고녀 · 부산항고녀 · 부산고녀[일본인 학교] · 삼도고녀[일본인 학교] 등이었으며 3년제 을중학교는 김해농고 · 밀양농잠 · 마산상업 · 통영수고 · 입정상업 · 초량상업 등.²¹⁾

즉, 갑종 중학교 8개교와 을중학교 6개교 등 총 14개 학교가 참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5년제 중학을 위한 경기 외에도 여학생들의 경기종목으로 擔架 운반, 消防 연습이 있었고, 을중학교는 을중학교끼리 1조로 하고 부산 외의 지방학교를 2조로 구분해서 경기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참가학교 수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들 학교

21) 경기대회 내용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주 바뀐 것으로 보인다. 청주상업 학교가 우승한 이야기는 김원근 반민특위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4282년[1949] 4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충북 조사부)에서 “全日本國防競技에 淸商이 2차 優勝하고, 소위 紀元 2600년 기념경기 때는 2등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한 데서도 확인된다. 국방경기대회를 청년연성 수단으로 파악한 것은 1944년 8월 30일 國民總力 朝鮮聯盟 理事會에서 靑少年의 鍊成의 일환으로 武道, 角力, 水泳, 登行, 國防競技 등의 장려사항을 제시한 것(『每日新報 1944.6.30』에서도 드러난다.

22)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동래고등학교 100년사』(2002.4.30), 211쪽; 강대민, 「앞의 책」, 2003, 190쪽.

는 모의훈련에 참가한 학교이지 실제 참가한 숫자는 4개 학교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한 팀만이 조선신궁대회에 나갔다. 즉, 후루자와(古澤敦郎)²³⁾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국방경기대회에는 한국계의 동래중과 제2상업 그리고 일본계의 부산중과 제1상업 등 4개교가 참가했다고 한다.²⁴⁾ 이는 1940년 청주지역 국방경기대회를 목격한 우창한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²⁵⁾ 또한 국방경기대회에서 읍져버처럼 참가한 을종중학교는 합동야외훈련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요컨대, 전일본 국방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산지구에서도 당연 학교간 경쟁에 의해 참가학교를 선발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의문은 참가학교가 8개교인지 혹은 4개교인지 나아가 8+6이었던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로선 5년제 학교인 동래중, 제2상업, 부산중, 제1상업 등 4개교가 참가한 것이 가장 유력하다.

3. 校史와 歷史의 탐구

기왕의 연구에서 11·23사건은 부산지역의 특수한 환경에서 민족적 울분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촉발한 항일의거였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정의로운 조선인의 항일과 사악한 일본인의 침략으로 구분하여 동래중의 실력은 최고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인의 야만성을 강하게 대비하려는 의식'에서 나왔다. 이는 『동래고등학교100년사』나 『부산학생운동정사』 혹은 『독립운동사』 등은 일관되게 주장되는 논지였다.

23) 일본 키타큐우슈우시 아하타 서구 혈생 1정목 20-35-803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중학교 졸업자.

24) 후루자와 서한 2003. 5. 28, -강대민 교수 소장 자료.

25) 우창한, 김인호, 2006, 「앞의 책」, 56쪽.

(A) 당시 교감이었던 요시카와(吉川)는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고 그날 밤에 고역을 맡게 하여 등산로를 우회 행군시켜 일본인 학생들보다 체력을 더 소모하게 했다. 그 이유는 이 훈련이 끝나는 다음날이 바로 제2회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개최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제는 제2회 대회에서 일본인 학교가 우승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자행했다.²⁶⁾

(B) 그런데 이 경기 대회에서 최종 경기 종목으로서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은 20명이 한 팀이 되어 우승의 경우에는 20점이 가산되는 ‘무장 행군 경주’였다. 이 경기에는 6교가 참가하였는데 코스 추첨에서 작년도의 우승교인 부산2상은 참가시키지도 않고 가장 힘든 외측 제6 코스에 배치시켰다.²⁷⁾

(C) 부산 제2상도 행동을 같이 했다. 보수동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민요와 황성옛터 등을 불렀다. 보수동을 지나면서 일본인 집이 많아지자 항일 구호는 더욱 고조되었다. 마침 이 날은 일본인의 축제일이어서 집집마다 등불을 밝게 켜 놓은 것을 부숴버리기도 하고 “일본인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집안으로 도망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때 학생들의 행렬에 동행하고 있던 김영근·허현 두 교사는 ‘부산제2상과 줄을 분리하라고 외쳤으나’ 학생들은 막무가내였다.²⁸⁾

(A)에서 일본인 교감이 일본인 학생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경기 이전에도 온갖 흉계를 다 꾸미고 있었으며, (B)에서는 작년 우승팀 부산 제2상도 추첨에서 빼는 등 편파적인 경기운영을 했

26) 강대민, 2003, 「앞의 책」, 189쪽.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앞의 책」, 719쪽.

28)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6쪽.

다. 결국 그러한 일본인의 치졸함에 대한 분노로 인해 (C)와 같은 항일적인 행동이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C)에서는 특히 부산2상도 조선인 학교로서 같은 처지에서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민요와 항일 구호를 외쳤다고 하고, 일본인과 일본인 학생은 그저 '동래중학생의 힘빼기' 등 치졸한 방법을 일삼는 과렴치한 모습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일본인=기만(억압) 그리고 조선인=억울함(항일의식)이라는 명확한 대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D)와 (E)같은 '편파판정'에 대한 조선인 학생들의 분노는 결국 그들이 평소 품었던 혹은 잠자고 있던 항일 의식을 표면에 등장하게 한 촉매였다는 것이다.

(D) 일제는 대회과정은 물론이고 대회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조선 학생에 대해 부당한 처우와 판정을 내렸다. 전년도 제1회 대회에서 우승한 동래중학교가 당연히 우승기를 가지고 입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교인 부산중학을 맨 먼저 입장시키고 그 다음 마산중학, 세번 째로 동래중학을 입장시켰다. 경기가 시작하자 달리기 등의 개인 종목을 먼저 하고 단체 경기로 옮겨갔다. 작년도 우승팀이었던 동래 중학교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 선두를 달리기 시작하자, 결국 재경기에 임하게 되었고...또 넓이뛰기 경기에서는 제일 많이 뛰 동래중 선수로 하여금 줄을 밟았다고 하여 실격시키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동래중의 성적을 불리하게 했다.²⁹⁾

(E) 작년도 우승팀이었던 동래중학교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 선두를 달리기 시작하자 이에 당황한 일본인 심판관은 노골적으로 동래중학이 1등만 하면 반칙이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턱걸이에서 동래중학선수 한 학생이 20여 회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딱 학

29) 강대민, 2003, 「앞의 책」, 191쪽.

교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구실 아래 힘이 빠진 동래중 선수에게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³⁰⁾

(F) 여기에 당황한 일본인 심판관은 더욱 악랄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곧 행군경주에서 지방학교인 2조의 시간을 잘못 재었다고 하면서 1조부터 다시 하도록 했다.다. 아예 오후에는 점수판에 점수도 기입하지 않았으며 각 학교의 총점수도 발표하지 않고 단지 범법만 일삼으면서 얼버무렸다. 일본인 심판관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마다 그 한 예로 동래중의 총 점수 끝이 0.5로 끝났는데 당시 대회 경기종목 점수는 모두 1점·3점·5점·10점·20점 등으로 끝 점수가 0.5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래중의 점수가 이렇게 된 데는 복장이 나쁘다. 단추가 안 잠겼다. 각반이 풀렸다는 등 트집을 잡아 억지로 일본인 심판관이 점수를 깎아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³¹⁾

(G) ‘담가경주’의 종목에서 동래중학이 1위를 하자 재시합을 시켰다. 이번에는 동래중학의 선수가 경기 도중에 넘어져 3위가 되고 말았다.³²⁾ 동래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경기에 임하여 담가운반 경기에서는 동래중이 1등을, 부산중이 3등을 했고 중량물 들기에서는 진주농고 선수가 105번을 들어 1등을, 동래중의 박근준 선수는 95번을 들어 2등을 차지했다. 이밖에 씨름경기에서는 부산 제1상 주장과 동래중 주장 표재철[유도초단]이 대결하여 2등을 차지했다. 이 같은 승전에 따라 동래중과 부산중과의 점수 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³³⁾

30) 『동래고등학교 100년사』212쪽에서 정리. 강대민, 2003,「앞의 책」, 191쪽.

31) 강대민, 2003, 「앞의 책」,192쪽.

3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독립운동사』(제9권)-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720쪽.

33) 강대민, 2003,「앞의 책」, 191쪽.

(H) 부산공설운동장 학생의거에 대하여 우리 학교와 부상상고간에 서로 주동학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부산제2상에서 편찬한 부산학생사건정사에서는 부산 제2상이 마치 주동이 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사건의 단서인 동래중학교가 우승하였는데 일본인 학교를 우승시킨데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다.³⁴⁾

즉, (D), (E), (F)에서 “제일 많이 뿔 동래중 선수로 하여금 줄을 밟았다”거나 “일본인 심판관은 노골적으로 동래중학이 1등만 하면 반칙이라고 때를 쓰기 시작했다” 등의 설명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운동경기에 개입되는 차별에 대한 누적적인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불리한 판정’ 혹은 ‘반칙’ 등의 술어는 그러한 불만을 반복해서 대변한 것이다. (F)에서 각반이 풀렸다는 ‘트집’까지 심판이 자행하는 등 총체적인 경기의 부정과 민족 차별의 극단을 묘사했다. 그렇지만 (G)는 일본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동래중은 참으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임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일본인에 대한 평가는 주로 야비함·구실·편법·트집 등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그들’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바로 그러한 ‘은밀한 欺滿’에 우리 조선인 학생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저항’은 분명히 當代보다는 오히려 해방 후 특히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등 각 학교 校史의 정리과정에서 보다 당시 의거를 ‘항일적인 것’으로 승격하려는 후천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즉, 해방이 되자 기왕의 구술자들은 민족이라는 중요한 수사를 본 사건에 대입하고자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34)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21쪽.

거두었다. 그리고 일정 단계의 성공을 넘어서는 이제 주도학교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H). 결국 민족의 이름으로 승격이 되자 다시 학교의 이름으로 영광을 재현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다.

4. 민족의 이름으로 한 폭력의 정당성?

기왕의 11.23사건에 대한 구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저항이나 노력보다는 ‘무차별적 폭력’이라도 일본인에 대한 저항이면 곧바로 항일운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적 무감각이 존재한다.

(A) 흥분한 동래중학생들은 심판을 맡았던 일본인 배속장교를 찾아가서 부정을 항의하고 일본말로 욕설을 퍼부었다. 카요 일본인 교사가 노다이를 두둔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사태가 점점 험악해졌다. 이 때 부산제2상이 합류하여 모리라는 제2상 교사가 두들겨 맞고 동래중학생에게 밝히었다...우리보다 앞서 나가던 학생들이 부산중 학생인줄 알고 두들겨 패었더니 우리는 마산중학입니다고 하는 말에 그만두기로 했었다.³⁵⁾

(B) 내태(乃台)를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만 동중(東中), 부상(釜商)의 양교 학생은 평소에 악질로 소문난 일인 교사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부상 학생은 동중의 악질 교사를 구타하고, 동중은 부상에서 민족 차별 교육으로 일관하던 일인 교사를 구타하였다.³⁶⁾ 이때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도 저절로 이에 동조하게 되었고 폐회가 선언되자 바로 그 운동장에서 노다이는 죽여라는 고함이 터져 나오며 한국인 학생들은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일본인 학생과 선생님들을

35) 강대민, 2003, 「앞의 책」, 194쪽.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5쪽.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앞의 책」,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721쪽.

구타하기 시작하여 운동장은 일시에 아수라장이 되었다.³⁷⁾

(C) 부산여고 옆 2층집에서 일본 여인이 내려다보가다 우리들로부터 돌세례를 받았다. 이때부터 일본인만 보이면 보복하는 행동으로 나갔다.³⁸⁾

(C) 일본인 심판관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마다 동래중 영어 교사 김영근은 본부석에 달려가 항의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사태가 점점 심상치 않은 것을 예감한 동래중 김영근과 허현 교사는 학생들을 집합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 또한 동래중 일본인 교사들은 모두 잠적했다. 또 타교의 일본인 교사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이 동래중의 움직임에 합류할까 두려워 학생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느라고 바쁜 걸음을 쳤다.³⁹⁾

(A)는 모리(森)라는 교사가 동래중학생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고, 동급 학생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마산중학생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멈춘 사례이다. (B)에서는 동래중의 악질교사에 대한 폭력 그리고 부산 제2상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다(C). 급기야 일본인 이면 모두 미워지고 일본인 여성조차 돌세례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상의 구술은 일본인 교사나 여성에 대한 폭력조차도 마치差別에 대한 정의로운 善戰의 한 유형인양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민족의 이름 아래 모든 인륜과 인간관계의 기초마저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될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도덕성에 대한 질책은 이미 당

37) 김이조, 1998.10, 「법조비화-노다이 사건」 『동래고동창회보』(194),3쪽.

38)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6쪽.

39) 강대민, 2003, 「앞의 책」, 194쪽.

대에도 제기되고 있었다. 1941년 6월 7일에 있었던 대구복심법원 秋田재판관의 판결문에서는 스승 구타에 대한 재판진의 냉담한 반응과 그것으로 인해 본 사건의 역사성이 어떻게 제약되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피고들의 진정서를 통하여 피고들이 군중심리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것과 자기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또한 청정무구한 면학의 길을 밟는 몸으로 그 장래에 대하여도 동정하며 그동안 령오(감옥)에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전 비(잘못)를 뉘우쳤스리라고 생각하나 피해자가 피고들의 고관이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종래 동양에서 일곱자 떠러져서 스승의 거림자(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피고들은 그 스승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와 가튼 일을 우리나라에서 자고로 그러한 무례를 뜻도 보도(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로 관대해 처분하래야 할수업다.⁴⁰⁾

민족의 소속을 초월해서 “이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무례” 즉, 스승에 대한 불손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어떤 민족적 의분을 담았던 간에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대중적인 지지도 받기 어려웠던 것은 자명하다.

IV. 11·23사건의 역사적 성격

1. 內鮮一體論에 대한 懷疑

부산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귀족이나 양반에게는 정변으로 죄지은 자들이 머무는 유배지였다. 그리하여 민중에게는 중

40) 「釜山學生事件」, 『每日新報』, 1941.6.8, 9면.

양에서 차별받던 향·소·부곡과 같은 집단 천민거주지에서 고초를 당해야 하는 어두운 해변도시일 뿐이었다. 이러한 부산에서 송상현·정발 장군 같은 관료를 제외하곤 그다지 忠君愛國하는 위인들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어찌면 당연하겠다. 바닷가에 사는 무식한 뱃놈들이 사는 곳, 집단 천민거주지에 살고 있는 문둥이들이라고 손가락질당하면서 부산사람의 가슴속에 쌓인 마음은 곧 根性(=곤조)가 됐고, 불뚝 성질이 됐다.

어찌면 부산 사람은 봉건적 비합리적 지배구조 아래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픔의 도시였고, 오늘날 부산사람의 정서 속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열등의식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연원을 갖는다. 부산은 그러한 역사적 연원에서 차별에 대한 저항을 도모하던 도시였고, 그것이 넘쳐 봉건 조선왕조를 붕괴시킨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融和'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차별에 대한 아우성이 근대 이행기 부산사람들의 기본적인 열망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이 11.23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일체는 조선인들에 대한 一視同仁과 內鮮一體의 필요성을 고창했고, 이에 순응한 조선인들의 자발적 친일과 침략전쟁 편승 분위기는 날로 확산되었으며, 자발적 친일의 반대급부인 민족차별 철폐에 대한 예민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따라서 11·23 사건은 그러한 내선일체를 통한 민족차별 철폐의 희망이 넘치는 시기에 발발한 사건 즉, 내선일체를 지향하는 당시 부산지역 학생들의 정서와 반대되는 '민족차별 현상'에 대한 반감이 우선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⁴¹⁾ 『동아일보』 1940년 12월 28일자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41) 강대민, 2006.12, 「앞의 논문」, 234쪽.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던 소위 제2회 경남 학도전력 증강대회의 개최식에 참가하였던 부산제2상업학교와 동래중학생들은 국방경기대회가 일본인 심판진의 부당한 처사로 일본인 학교가 우승을 차지한 데 분개하여 항의를 제기하다. 폐회식 마지막 순서로 일본기가 하강하자,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국가 대신에 「아리랑」을 제창하였으며 양교생 1천여 명은 시가행진을 행하였다. 이들 시위학생들은 당시 금지곡이었던 「황성옛터」·「아리랑」·「양산도」·「도라지」 등의 노래를 고창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일본놈 죽여라” “무엇이 내선일체냐” “무엇이 동아의 맹주냐” “너희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등을 절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동대회 심판장이며 경남지구위수사령관 부산지구병참사령관 부산시내 중등학교 배속장교 총책임자인 일본군대좌 노다이겐지(乃台兼治)의 관사를 습격하여 관사를 파괴하고 노다이를 구타하다. 이날 일경과 헌병들이 출동하여 약 2백 명의 학생을 체포하다.⁴²⁾

11·23사건으로 부산2상과 동래중학생 약 1천여 명이 시위를 했고, 15명이 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호이다. ‘조선독립만세!’ ‘무엇이 내선일체냐’, ‘무엇이 동아의 맹주냐’ ‘너희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이다. 이들 구호는 내용면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보여준다. 먼저, ‘조선독립만세’라는 구호는 1940년대라는 험악한 시국에 비출 때 무척 급진적 구호였다.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지만 본 자료가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취재한 기사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각할 것은 분명하다.

둘째, ‘무엇이 내선일체인가’라는 대목이다. 그동안 일본의 식

42) 『동아일보』 1940. 12. 28.

민지 강점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만과 개발의 환상에 기초했다. 1941년 시점에서도 한 때 『민족개조론』까지 출간하고 민족의 근대적 변화를 주장한 李光洙조차 일본이 선전하는 一視同仁과 內鮮一體에 회의적이었다.

조선 사람의 식자계급에서 자주 정말 내선일체를 해줄 것인지 라는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꾸념하는 소리가 들린다. 정말로 내선일체가 되면 조선 사람에 대한 내지인의 특권이 소실되기 때문에 내지인은 조선 사람이 진짜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얼핏 바보스런 기우 같지만 실제로 상당히 뿌리 깊은 기우이다. 또한 의외로 내지인 가운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자도 있다.⁴³⁾

즉, 그는 차별과 열등에서 벗어나게 할 내선일체는 오히려 일본이 주장했지만 결국 실현해 주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런 노력이 진정 조선인이 추구하는 내선일체의 본의로 이해되는 경우 이들은 친일=매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친일은 ‘민족을 위해서’라는 기묘한 관념으로 무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정하게 자기 민족을 위한 친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시아 민족의 공영론에 열광하게 만들었고, 일부 조선인에게 열등감을 해소하는 위안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東亞日報』기록에 나타난 11.23사건 당시 학생들의 구호는 1940년까지도 내선일체론은 젊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던 정황을 보여준다.

셋째, ‘무엇이 東亞의 맹주이냐’라는 구호이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전후하여 조선이 동북아의 맹주가 될 것이라는 환상을

43) 香山光郎, 1941.5.10, 『內鮮一體隨想錄』, 協和叢書(5), 中央協和會, 1~2쪽 : 宮田節子, 상동, 182쪽.

널리 심고자 했다.⁴⁴⁾ 나아가 “조선이 대륙을 인수한다”는 등의 구호로 조선이 마치 북방엔블록의 맹주가 되는 듯한 착각을 주었다. 물론 이것은 조선인을 고무하여 조선을 ‘생산력充塡기지’로 삼으려는 총독부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바로 학생들의 구호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기만성에 대한 반감을 대변한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조선맹주론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넷째, ‘일본 놈 돌아가라’라는 구호는 현실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간의 경제적 격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침략전쟁의 성과를 일본인들이 독점하는데 대한 학생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다. 일찍이 일본의 전시전후 실상을 파헤쳤던 코헨(J.B. Cohen)은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는 일본인이 주축이었으며 조선인은 자국의 공업화에 참가하는 것이 제약되었다”고 언급하고 “8·15 당시 인구가 조선인의 3%에 불과한 일본인이 조선 내 공업자산의 80% 이상을 독점”한 것은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다.⁴⁵⁾

따라서 본 사건은 ‘차별로부터 탈피’를 지향한 당시 학생들이 내선일체의 실질적 구현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그런 면에서 다음 구술은 당대 느꼈던 내선일체론과 실질적 불평등간에 나타나던 처절한 조선인 청년들의 피해의식을 보여준다.

44) “남방권 편입에 따른 동아공영권의 확대에 의해서 대륙전진병참기지로써 조선의 사명은 종식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공영권의 핵심이 종래 대륙에서 해양으로, 북방권에서 남방권으로 이행하는 금일에 있어서도 북방대륙권 또한 건설과정인 한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선의 경제권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종래와 하등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하 “대륙은 조선이 인수한다” 라고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후방의 우려를 벗어나고 그 전체의 자세를 태평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이상, 대륙전진병참기지로써 조선의 사명은 일층 강화되어야 한다.” 東洋經濟新報社, 『年刊朝鮮』(1942), 18~19쪽.

45) J.B. Cohen, 大内兵衛 역, 1950, 『戰時戰後日本經濟』上, 岩波書店, 50쪽.

심판관들은 심판장 노다이의 지령에 따라 복장검사에 있어 심판관들이 자기 손으로 단추 혹은 각반을 건드려 풀어놓는 등 형용할 수 없는 야비한 수단으로 트집을 잡고 복장미비란 구실을 달아 실격을 선언하고 2위였던 당시 일본인 학교 부산중을 1위라고 선언했다.⁴⁶⁾

즉, ‘야비한 수단’이라는 말에 담긴 것은 일본인만 잘먹고 잘사는데 대한 조선인의 피해의식 그 자체이다. 비단 그러한 내면적 차별에 대한 자각은 戰時收奪이라는 고달픈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함께 축적되었다. 이러한 조선인의 내선일체론에 대한 의구심은 다름 아닌 일본인 자신이 조선인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한 데서 증폭되었다. 당시 총독부가 어느 정도로 조선인을 믿지 못했던가는 ‘임전보국단지도방침(1941년 말)’에서 “순수한 조선인 단체로서 합법적인 민족운동 등에 역이용될 것에 주의하고 불평·감정을 토로하거나 혹은 당국의 시정에 용탁하여 진정·청원 등의 정치운동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⁴⁷⁾이라 하여 이 단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1942년 10월에는 급기야 이 단체가 ‘민족운동 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여 총력운동 기구에 흡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⁴⁸⁾

요컨대 11·23사건은 단순한 민족적 울분의 차원이 아니라, 내선일체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데 대한 분노였다. 그들의 분노는 민족차별을 반대하지만 곧바로 민족해방운동은 아니었으며, 내선일체의 틀에서 내선일체 선전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46) 강대민, 2003, 「앞의 책」, 193쪽.

47) 조선총독부 경제경찰과, 1941?, 「治安概況」, 208쪽.

48)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421쪽.

2. 민족의식보다는 애교심

기왕의 연구를 보면, 11.23사건의 배경에는 중학교에 자녀를 보낼 조선인 중산계급의 현실적 불만이라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어 주목된다.⁴⁹⁾ 실제로 1930년 昭和恐慌 이후 총독부는 조선에서도 대륙침략전쟁에서의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대규모 일본자본을 유치하여 군수공업화, 대용품공업화 등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기층의 조선인 토착자본가 내지 중산층 등에게는 공업 투자를 선동했고, 만주국 성립을 전후해서는 '滿州의 樂土化'⁵⁰⁾ '조선경제의 前途光明' 등을 선전하면서 '만주진출'을 부채질하였다. 물론 이것은 조선인 자본가를 침략의 尖兵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이었다.⁵¹⁾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서 효율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조선인자본가의 만주 진출은 제한적이었고, 현실적으로 조선내 失業 문제는 날로 커졌다.

요사히 전황으로 각 학교마다 학비가 업서서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도라가는 학생이 만타, 여기에 이상한 것은 학생이 작고 주러서 학반이 횡딩그레-해도 수업료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1930년의 현상중 하나라면 1931년에는 부호의 아들을 개인교수하는 격으로 학생 한 사람 선생 한 사람씩 학반의 정적을 덜 모양.⁵²⁾

49) 이 견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중농급 이상의 자제여야 비로소 그나마 공부해서 시골 면사무소 서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 당시 누구보다 먼저 일본인처럼 살아야겠다고 가르친 것은 그나마 밥술이나 뜯 수 있는 집안이었고 그들의 자제들은 하층으로 전락되지 않으려고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 나갔고, 공부를 했다는 것이다.(강대민, 2006.12, 앞의 논문, 239쪽).

50) 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 1932.3.18

51) 김인호, 2000, 『식민지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57~58쪽.

52) 안석영, 「1931년이 오면」 『조선일보』, 1930.11.27.

당시 조선인 중산계급의 당면 고민은 거창한 민족해방이 아니라 당장 먹고살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였다. 그렇지만 『大阪朝日新聞 朝鮮版』(1933.3.1)에서 釜山의 경우 “1932년 직업소개 성적이 26% 정도에 불과하다”⁵³⁾는 기사처럼 취업난이 유난히 심했다. 1930년대 중반에도 마찬가지였다.⁵⁴⁾ 『朝鮮中央日報』(1934.1.27)에는 “만 여명 구직자 중 취직자 불과 천여명, 救窮 사업에도 11만 여 인 釜山소개소의 통계”라는 기사가 그리고 같은 신문(1936.6.11)에는 “구직자 천여 명에 취직은 겨우 1할. 부산직업소개소에 나타난 지난 5월 중의 숫자”라는 기사 등에서 당시 釜山지역 구직난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드러난다. 『東亞日報』(1936.3.7)의 경우도 “知識의 象牙塔 나서니 職業苦海에 출법난” 그리고 “관·사 전문 이상 학교 졸업생으로 작년 취직은 불과 6할” 등의 한탄은 당대 조선인 중산층의 고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직난은 중일전쟁 이후 특히 1939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求人難으로 전환하였다. 『每日新報』에서 “취직난은 옛말인가”(1939.6.8), “취직경기가 大活況”(1938.8.10)과 같은 기사라든가 『東亞日報』의 “구직자 결핍상태 취직난의 역현상 전개 구직자 부족은 부산부에 처음 있는 사실 釜山職業紹介所 悲鳴”(1939.2.5) 등의 기사는 당시 청년 실업 문제가 급속히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53) 「憂鬱な就職率 二割六分強 釜山職紹 昨年の成績」, 『大阪朝日新聞 朝鮮版』, 1933.3.1.

54) “卒業期를 앞둔 就職戰”(『朝鮮中央日報』1935.2.8)에 이어 “함흥부의 六千餘求職者中 就職은 不過三割뿐이며”(1936.5.21), 함흥부 1935년 현재 “八千名求職者中에 就職은 不過二千”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발표했고(1936.9.2), “就職率不過六割”(1936.2.7), “직업을 달라고 소개소 창구에 失業 軍중 成市! 작년중에만 실로 천4백여명, 취직은 불과 4할”(1936.12.8) 등의 기사가 줄을 잇는 등 취업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釜山) 취직전선에 이상이란 옛날 일 이젠 구인전선에 대이상이란 역현상을 나타내이고 있는바 사무원 급사 인부 등 각 방면의 대량 구인에 대하여 구직자가 결핍으로 부산 직업소개소에서는 비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전례없는 역현상임에 감하여 동 직업소개소에서는 요지음 구직자 개척 주간을 정하고 직원이 실지 가두에 진출하여 구직자 모집에 대활동을 개시하리라는데 이러케 구직자 개척에 분주하게 되기는 개소 이래 처음이라 한다.⁵⁵⁾

이러한 경향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동아일보』에서 “就職難의 逆現狀 뒤를 이어 졸업생의 주문답지 開城商校卒業生 賣盡”(1938. 12.10), “就職難 없는 非常時 불세나는 明春卒業生 平壤各實業校에서 벌써 賣盡”(1939 .11.26) 등의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표 2> 1936년 3월중 원산부 초·중등학교 졸업생 취직상황

(중등)

교 명	졸업생수	취업희망	취직수
상업학교	35	28	28
고등보통	4	12	10
고등여학교	42	6	1
永生고보	38	16	11
永生여고보	81	9	3
합계	240	71	53

55) 『東亞日報』 1939.2.5.

(초등)

교 명	졸업생수	취업희망	취직수
제1공보	334	93	42
제2공보	252	75	45
영신보통	73	23	11
여자공보	87	20	-
소학교	43	23	21
합 계	979	270	129

출전 : 「卒業後の就職狀況」, 『元山毎日新聞』(1936-05-19)

부산부의 기록을 현재 찾을 수 없어서 대신 원산의 사례를 정리한 <표 2>를 보자. 총 71명의 중학교 졸업후 취업희망자 중 53명이 취업이 되었고, 특히 여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취업을 했다. 그중에서도 상업학교의 취직률이 무척 높다. 따라서 명확히 1939년을 전후하여 중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문제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적 고민은 바로 상급학교에 가는 일이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상급학교 졸업자들의 전도양양한 활로를 목격한 결과였을 것이다. 1938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의 "上級校엔 가자니 門이 좁고 卒業했으니 就職이나 할 밖에 學期 앞둔 釜山中等校의 動向"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부산중학생의 현실적 고민은 상급학교의 좁은 문이었다.

취업난은 초등학교 졸업생에 해당되는 것이다. <표 2>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업자는 졸업생수에 비해선 13% 그리고 취업희망자의 45%정도로 무척 낮게 나타난다. 물론 초등학교 졸업생은 1941년 이후 징병, 징용 등의 강제동원과 전쟁인력 수요가 겹쳐서 점차 상황이 달라지지만 1930년대 후반까지도 구직난이 심각

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후반까지도 부산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다.

(釜山)초등학교 졸업생 취업자의 근속성적이 부진에 처한 부산직업 소개소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년부 취업지도에 나서고 취직하려는 소년 특히 선인 소년의 소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29일 소개소루상에 학교 관계자 부교육계 도학무계 관계자들이 출석하여 협의하였다...일반적으로 선인구직자의 알선에 실패하는 원인으로서는 그들이 내지인 가정의 풍습, 습속기타 일상의 간단한 작법인사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18세 이상의 선인구직자의 비교적 우수한 자는 선별하여 소개소내에서 매주 3회 오전8시부터 30분간 내지인의 생활양식에 관한 대화, 인사, 응대 등에 관한 실습을 도할 것이다.⁵⁶⁾

따라서 기왕의 연구에서는 11.23사건의 경제사적 배경으로 중산층 자체의 취업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1940년을 전후에는 초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에 반비례해서 중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오히려 구인난이었다.

정리하면, 일부 연구에서 운동의 배경으로 그동안 당시 식민지 중산층의 불만 문제가 다뤄졌지만 실제로 1940년 전후 시기 조선인 중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난은 근거가 없으며, 침략전쟁은 오히려 종래(30년대 초)의 취업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이에 조선인 중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들의 몸값이 상승하면서 그에 수반한 인격적 정신적 차별 철폐 욕구도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국방경기대회와 같은

56) 「朝鮮人子弟の就職 なぜ悪い? 内地人の生活様式實習など關係者が集つて協議」『釜山日報』(1935.6.27)

현실에서 애교심이나 학교간의 경쟁심을 매개로 분출하였고, 마침내 11.23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조선인 학생의 애교심은 자신의 몸값 상승에 따른 차별 철폐 욕망의 새로운 분출처였다.

(A) 1940년 11월 23일에 일어났던 부산공설운동장 학생의거에 대하여 우리 학교와 부산상고 사이에 서로 주동학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본래의 순수하고도 숭고한 의거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일어난 이상 그 진상을 밝히고 후세의 동고 동창에게 깊이 전하고 또 우리들의 선배와 일반국민에게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 일에 참가하였던 우리들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한다.⁵⁷⁾

(B) 부산 제2상에서 편찬한 부산학생사건정사에서는 부산 제2상이 마치 주동이 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따서 그곳에서는 사건의 단서인 동래중학교가 우승하였는데 일본인 학교를 우승시킨데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다. 그 책자의 편자가 부산 제2상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애교심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⁵⁸⁾

(A)와 (B)는 오늘날에 와서도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애교심, 학교간의 경쟁심이라는 제약에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당시 청주농업학교에 재학하던 우창한의 증언에서도 그런 학생들의 내면이 목격되고 있다.

57) 전계,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219~20쪽.

58) 상동, 221쪽.

청주지역에서는 청주농업을 비롯하여 청주상업과 제1중학교(조선인 중학교, 본래 청주 공립고등보통학교), 제2중학교(일본인 학교) 등이 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제2중 즉 일본인 중학교에 조선인 몇 사람이 들어갔다. 그 중 한사람이 금융조합 이사의 아들이었다. 대체로 당시 일본과 협조한 친일파의 자제들이었다. 청주 농업학생들은 청주상업학생들과 같듯이 많았다. 청주상업출신자들이 여러 은행이나 각종 회사에 취직률이 좋았기 때문에 주변의 시기를 받은 것이다. 청주 제1 중학교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⁵⁹⁾

이처럼 11.23사건은 해방 후 다양한 각색을 거쳐서 민족의 이름으로 승격되기 이전 순수한 학생들의 애교심과 자기 몸값에 대한 자존심이 촉발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취업난이나 중산층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 탈락이나 소외감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학생다운 건강한 양심과 이상주의의 발로로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 사건에 민족과 항일의 레토릭을 덧칠하려면 구술자들은 여러 가지 그에 反하는 당시 상황이나 요소를 충실히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돌아보아도 국방경기대회는 그 자체가 친일행각이었고, 거기서 승리하겠다는 집념 자체가 침략전쟁에 부응한다는 딜레마이다. 일본인과 다투었다는 것만으로 항일운동의 전형처럼 이해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11.23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선 당대 학생들이 키운 애교심과 자존심 그리고 몸값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민족적 굴레 속에서 작동하는지 면밀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동래고등학교 100년사』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본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했던 주체는 바로 그들 학생들이었다. 그들만이 살아 있는 사람

59) 우창한, 김인호, 「앞의 책」, 국학자료원, 2006, 60, 61쪽.

으로서 권리와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의 주관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愛校心의 형태를 빌려 폭발시켰던 것이다. 1941년 6월 7일에 있었던 대구복심심법원 秋田 재판관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 주동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피고들은 애교심과 군중심리에서 그리하였다하지만 한짓이 너모나도를 지나쳤습으로 여기에 원심대로 판결을 내리며 동시에 깨끗이 잘못을 뉘우쳐야만 할것이다.⁶⁰⁾

그렇지만 단순한 감성으로서의 애교심으로 이 사건의 본말을 구성할 경우 발생하는 편견을 감당하기 무척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애교심이란 校史의 영역 안에서만 머물 경우 학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지키고 빛내는 데 기여하겠지만 역사로 등장할 때는 항일의 이름으로 과대평가되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혼란스럽게 했다. 요컨대, 1940년대 전시체제 아래서 이런 저항을 곧바로 절대적인 형태의 항일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넘어 새롭게 확장되는 조선인 수요와 그에 상응하는 차별철폐에 대한 희구가 이러한 학교간의 경쟁이라는 현상을 뚫고 발아한 것이 바로 11.23사건이었다.

V. 나오며

11.23사건을 통하여 당시 많은 부산지역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

60) 「釜山學生事件」, 『每日新報』, 1941.6.8, 9면.

다. 하지만, 이제 21세기 보다 이들 항일의 전통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맹목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자기고장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야 하며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밝힘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그저 항일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식으로 일도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면한 그들의 현실과 삶의 당면과제에 대한 나름의 몸부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록 직접적으로 저항정신이나 투쟁 면모는 발견할 수 없어도 훨씬 당대 운동주체들의 고민과 실천적 모습을 이해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의 校史가 민족적 역사로 상승하면서 과잉 해석이 난무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특정의 몇몇 학교의 학교전통 발양하기 차원에서 다양한 고민과 논의의 여지가 많은 11.23사건이 마치 194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항일투쟁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현실에서의 필요가 얼마든지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고민을 더해주기 충분하다. 이러한 교사 쓰기로 인해 국방경기대회가 팀별 경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간 대결 일변도로 오해하게 했고, 애교심이나 학교간의 경쟁을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간의 갈등으로 일반화하여 민족운동차원으로 승격하려는 과잉해석을 낳았다. 따라서 이러한 항일의 기억은 실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조선 대 일본이라는 이분법 인식을 근거로 당시 학생들의 행위를 항일 일변도로 연계하려는 의도가 관철된 후천적인 ‘성역화’의 결과물이다.

둘째, 각종의 구술에서 학생의 훈육을 담임하고 있는 학교 교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조선인 학생들은 전혀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지 않았다. 국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체는 대단한 親日이며 침략전쟁의 꼭두각시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했다.

셋째, 11.23사건의 원인은 취직난과 같은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침략전쟁 이후 조선인 중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들의 몸값이 상승하면서 그에 수반한 인격적 정신적 측면의 차별철폐를 회구한 것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철폐 욕구는 바로 애교심이나 학교간의 경쟁심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사실 당시 총독부의 민족차별 정책은 중요한 지배논리였지만 국방경기대회와 같은 영역에서 드러내는 일본인의 '야비한 행동'은 결코 조선 지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침략전쟁에 동원하려는 이상 그들의 몸값에 대한 '대우'가 불가피했으나 총독부는 실질적인 대우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족단위가 아니라 실생활 단위에서 민족적 갈등과 불만은 오히려 고양되었다.

넷째, 11.23사건은 조직적인 항일운동이나 침략전쟁 반대운동으로 될 수 없지만 그들 스스로 추상적인 항일 구호에 가두지 않았고 이미 가진 계층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 삶의 질곡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뿐인 민족차치라든가 실생활에서의 차별 등 이른바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어렴풋한 민족적 자각(이는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신문 및 구술기록 혹은 연구서에서 한결같이 '황성옛터'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에서) 그리고 지식인의 양심, 청년의 소신이 애교심이라는 본능과 화학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꿈도 꾸지 못할 초유의 11.23 사건을 촉발했다.

요컨대, 본 사건의 시발점은 학교간의 경쟁이었다. 국방경기대회에서 1등을 놓고 형성된 동래중학교와 부산중학교 사이의 대항전과 거기에 일본인 심판이 부정적으로 부산중학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본 사건에는 종래와 같이 민족해방운동과 직접 연계된 찬란한 항일투쟁은 아니지만 제국의 틀

내에서 존재해야 하는 학생계층의 취업난이나 정체감 등의 불만을 넘어 침략전쟁으로 상승한 자신의 몸값에 상응하는 대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애교심과 자존심을 키우게 했지만 현실의 여건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 차별에 대한 양심적 비판의식과 앞서 말한 본능적 애교심이 결합하여 새로운 층위의 항일운동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선일체로 말하는 항일이었다. 이는 기존의 절대적 항일, 적극적 항일만이 평가받는 抗日運動史像에 일정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 東洋經濟新報社, 1942, 『年刊朝鮮』
- 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
- 『大阪朝日新聞 朝鮮版』, 『朝鮮中央日報』 『釜山日報』 『每日新報』 『동래고동창회보』
- 香山光郎, 1941.5.10, 『內鮮一體隨想錄』, 協和叢書(5), 中央協和會,
- J.B. Cohen, 大內兵衛 역, 1950, 『戰時戰後日本經濟』 上, 岩波書店.
- 김의환, 1967, 『부산근대 교육사』, 태화출판사.
-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시사』 제1권.
- 부산항일의거기념논집편찬위원회, 1992, 『부산학생 항일의거의 재조명』, 계림출판사.
-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2002, 『동래고등학교 100년사』.
- 釜山學生事件正史編纂委員會, 1967, 『釜山學生事件正史』.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12.26, 『독립운동사』(제9권)-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 문인갑 등, 1962, 『乃台사건회상록』, 동래고등학교.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6, 『부산 민주운동사』.
- 우창한·김인호, 2006, 『역사의 경계를 넘는 격정의 기억』, 국학자료원.
- 강대민, 『부산지역학생운동사』 국학자료원, 2003, 190쪽.
- 후루자와 서한, 2003. 5. 28, -강대민 교수 소장-
- 김인호, 2000, 『식민지조선경제의 종말』, 신서원.
- 강대민, 2006.12, 「노다이사건 구술 재검토-반제항일과 내선일체의 중간지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49)
- 김의환, 1990, 「일제하 부산의 학생항일 독립운동」, 『윤병석교수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 강창석, 2000, 「1940년 부산 항일학생운동의 역사적 배경」, 『항일학생운동 재조명』.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 강대민, 2000, 「부산지역 항일 학생운동의 성격」. 『항일학생운동 재조명』.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 김호일, 2000, 「일제하 항일학생운동의 제양상」. 『항일학생운동 재조명』,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
2009. 10. 31	2009. 11. 26 ~ 12. 7	2009. 12. 15

【국문초록】

전시체제가 유래없이 큰 규모로 발생하여 '당위에 찬 민족항쟁의 길'이나 '민족혼의 충격적 경각' 등의 수사로 부산지역 항일 민족운동사의 한 획이었던 것으로 묘사되는 11.23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성의 기회가 필요하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특정의 몇몇 학교의 학교 전통 발양하기 차원에서 다양한 고민과 논의의 여지가 많은 11.23사건이 마치 194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항일투쟁처럼 이야기 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의 필요가 얼마든지 역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고민을 더해주기 충분하다. 이러한 글쓰기로 인해 국방경기대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마치 일본인과 조선인 학교간 대결 일변도로 오해하게 했고 애교심이나 학교간의 경쟁을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간의 갈등으로 일반화하여 민족운동 차원으로 승격하려는 과잉해석이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항일의 기억은 실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조선 대 일본이라는 이분법 인식을 근거로 당시 학생들의 행위를 항일 일변도로 연계하려는 의도가 관철된 후천적인 '성역화'의 결과물이다. 사실 11.23사건의 원인은 취직난과 같은 경제적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침략전쟁 이후 조선인 중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들의 몸값이 상승하면서 그에 수반한 인격적 정신적 측면의 차별철폐를 희구한 것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철폐 욕구는 바로 애교심이나 학교간의 경쟁심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또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각종의 구술에서 학생의 훈육을 담임하고 있는 학교 교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민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조선인 학생들은 전혀 침략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지 않았다. 국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체는 대단한 親日이며 침략전쟁의 꼭두각시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11.23사건은 조직적인 항일운동이나 침략전쟁 반대운동으로 될 수 없지만 그들 스스로 추상적인 항일 구호에 가두지 않았고 이미 가진 계층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 삶의 질곡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민족 자치과 현실에서의 차별간의 모순 즉, 내선일체의 기만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어렵듯한 민

족적 자각(이는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신문 및 구술기록 혹은 연구서에서 한결같이 '황성옛터'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에서) 그리고 지식인의 양심, 청년의 소신이 애교심이라는 본능과 화학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당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꿈도 꾸지 못할 초유의 11.23 사건을 촉발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향토애나 모교사랑의 그늘에서 11.23사건의 역사성이 항일의 이름으로 획일화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항일운동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당대 살았던 중산층 자제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 헤쳐 나가려는 아우성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 사건의 전통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면 맹목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자기고장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야 하며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밝힘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그저 항일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식으로 일도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당면한 그들의 현실과 삶의 당면과제에 대한 나름의 몸부림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록 직접적으로 저항정신이나 투쟁 면모는 발견할 수 없어도 훨씬 당대 운동주체들의 고민과 실천적 모습을 이해할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사건의 시발점은 학교간의 경쟁이었다. 국방경기대회에서 1등을 놓고 형성된 동래중학교와 부산중학교 사이의 대항전과 거기에 일본인 심판이 부정적으로 부산중학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본 사건에는 종래와 같이 민족해방운동과 직접 연계된 찬란한 항일투쟁은 아니지만 제국의 틀 내에서 존재해야 하는 학생계층의 취업난이나 정체감 등의 불만을 넘어 침략전쟁으로 상승한 자신의 몸값에 상응하는 대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애교심과 자존심을 키우게 했지만 현실의 여건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형성된 민족 차별에 대한 양심적 비판의식과 앞서 말한 본능적 애교심이 결합하여 새로

운 총위의 항일운동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선일체로 말하는 항일이었다.

핵심주제어 : 국방경기대회, 노다이겐지, 내선일체론, 11.23사건, 황운익찬, 부산제2상, 청주상업학교, 동래중학교, 애교심

【Abstract】

**11.23 Incident, beyond the fence of nationalism
and anti-Japanese value**

Kim, In-ho / Dong-eui Univ.

Nodayi-incident was outbreak in November 23 in Busan, 1940. At that time, the Government-general opened National-defense-tournament to enhanced Korean student's military defense ability since 1939. But match referee Nodayi significantly biased the Japanese students in the process. Finally, the Japanese referee to stop the Koreans school won. Then the Koreans students had increased ethnic resentment. More than 1,000 students produced the anti-Japanese protests.

The existing studies said this movements just as the memorial history of alma mater. These studies look as if 'the human instinct alma-materism' counterfeit as 'shield of the objective'. In other words, they wanted upgraded it belongs to

same family as anti-Japanese movement, but forgot oneself in a fit of passion. The student movement was nothing else but occurred in specific and actual contradiction of their life. Above the background in this case 11·23incident described being anti-Japanese move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about 'anti-Japanese value' which appeared in the 11.23incident-related research. To this end, this research analyzed distorted and exaggerated size in the existing oral data and researches

Due to Busan 11.23 movement, many students Koreans suffered. But it is the 21st century. The coming research has to go beyond historical view of lean to one side on traditional anti-Japanese value, heroism of history and patriotic sentiment. I want to describe concrete the understanding or the challenges in themselves which faced with the reality of their lives rather than abstract and conceptual term as like he anti-Japanese. When you do this, even though that aspect directly resist the spirit and the struggle can not find much contemporary movements of the subject can understand his distress, and practical.

11.23 Nodai-incident was not organized anti-Japanese movement. But this monement did not keeping oneself in the abstract anti-Japanese slogans. Already they were a member of the propertied classes. The presence of freed from extreme pain of life. Therefore, They were being awar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self-discrimination in reality in the broad sense. They already knew 'the deception of

Kor-Jap-one-body-theory(內鮮一體論)'. Such an intellectual awareness of the looming national conscience was linked with alma-materism together. At last unprecedentedly 11.23incident broke out. In short, the source of this incident was competition between the schools. 11.23incident was not directly linked conventional anti-Japanes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owever students who live in the Empire was more critical the Japanese. In addition, self-consciousness on discrimination linked with alma-materism together. In other words, 11.23incident have deep meaning as new type of anti-Japanese movement like Kor-Jap-one-body in shape.

Key words : National-defense-tournament, Nodai kenji, 11.23incident, alma-materism, the promotion he luck of an Emperor, Cheongju Commercial School, Kor-Jap-one-body-theory, Busan second Commercial School, Dongnae Middle school